2012. 11. Vol 219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가을이면 한번쯤

시간 없다 핑계 대며 지나치던 하늘 향해

빨개진 얼굴로 수줍게 윙크 날렸더니

햇살을 풀어놓은 가을

잠시잠깐 쉬어가래

나무 뒤 숨어있다 눈 마주친 바람에게

반갑다 인사하며 손 한번 잡았을 뿐

들켰다

가을바라기

코스모스의 짝사랑

고복연

- 충북 진천출생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충북시조문학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진천지부 회원
- 2009 시조시학 신인상 등단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Contents

2012. 11. Vol 219

4 지역균형발전·청원청주통합 지원 후반기 핵심과제

6 제314·315회 임시회 – 남북교류 확대 조례 의결

7 대형 유통업체에 중소상인과 상생 촉구

8 충북도·중국 광서자치구 교류 확대

9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효성 높인 해외연수

10 각 상임위원회 활동

16 주요 처리의안

18 도정질문

24 5분 자유발언

26 제9대의회 후반기 자문위원 위촉

27 의정활동 이모저모

30 의원논단

31 의정일기

● **발행일** 2012. 11.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 **전화** (043) 220-5124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후반기 충북도의회 핵심과제

지역균형발전-청원·청주 통합 지원

양대 특별위원회 구성 … 유완백·최미애 위원장 선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장

강현삼 부위원장

윤성옥 의원

임헌경 의원

최병윤 의원

최진섭 의원

황규철 의원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최미애 위원장

김도경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

김종필 의원

김형근 의원

박문희 의원

장병학 의원

제9대 후반기 충북도의회의 핵심 지역현안 과제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청원·청주통합 지원으로 설정돼 적극 추진된다.

도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체의원 연찬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쳐 이번에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집행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책연구, 남부·북부권의 특성을 살리면서 권역 내 시·군 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시책 연구, 충청권 4개 시·도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건의를 하게 된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는 청원·청주통합에 따른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을 포함한 정부 인센티브 확대, 통합지원 입법, 상생발전 방안의 진행상황 점검 등 도의회 차원에서 통합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양대 특위의 활동기간은 제9대 의회의 임기 만료일인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완백 의원(보은), 부위원장은 강현삼 의원(제천2), 위원에는 윤성옥 의원(충주2), 임헌경 의원(청주7), 최병윤 의원(음성1), 최진섭 의원(청주4), 황규철 의원(옥천2)이 선임됐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미애 의원(청주9), 부위원장 은 김도경 의원(청원2), 위원으로는 김영주 의원(청주6), 김종필 의원(진천1), 김형근 의원(청주2), 박문희 의원(청원1), 장병학 교육위원(제4선거구)이 맡았다.

▲ 10월 18일 청원·청주통합지원단장으로부터 통합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양대 특위, 간담회 열어 활동방향 협의

양대 특위는 구성 후 간담회를 열어 특위의 역할과 중점 활동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0월 15일 간담회를 열어 특위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특위의 역할로는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갈등해소와 정책연구, 집행부에 대한 정책건의, 집행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 및 예산배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정역할이 제시됐다.

또 운영방향으로는 단위사업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측면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불균형 해소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출받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위는 18일 간담회를 열어 추진단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들었다. 또한 특위는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활동방향, 청원·청주통합 로드맵에 따른 지원대책 등을 협의했다.

협의에서 특위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통합법 조기제정과 정부예산 확보 등 대정부 관계 업무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장은 하재성 교육위원(제1선거구), 부위원장은 노광기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봉회 의원(증평), 심기보 의원(충주3), 이수완 의원(진천2), 전응천교육위원(제3선거구)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대 의회 임기 만료까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하재성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

김봉회 의원

심기보 의원

이수완 의원

전응천 의원

사무감사 계획 확정·남북교류확대 조례 의결

제314·315회 임시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도

충북도의회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도청이전을 골자로한 도정질문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했다.

회기 중에 실시한 연찬회에서는 의정비, 국제교류, 특위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11월 정례회기에 시행 예정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김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그리고 10월 16일 전체의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셀트리온 등의 현지를 견학하여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비교 점검하고 바이오의약품 선도기업 방문을 통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등에 접목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가 되는 만큼 각 상임위별로 자문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견실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

충북도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9월 12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태풍피해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 의정비 결정 절차와 관련한 행정력과 예산소모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정비는 2013년에도 4968만원이 된다. 현재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도와 시·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3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 중소상인과 상생 촉구

대형유통업체의 둘째, 넷째주 휴업 재개와 관련해 도의회가 발빠르게 대응 했다.

도의회는 지난 8월 21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상생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 유관 기관 등 약 1천여 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도의회는 공문서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영업으로 전통시장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골목상권은 붕괴되어 서민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고 지역상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대형유통업체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까지 붕괴시키고 있어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다" 면서 시민단체, 상인단체, 정치권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명 서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영업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하며, 대형유통업체는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상생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형유통업체는 시·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극 준수하라.

둘째,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상인간의 상생과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시행하라.

세째, 대형유통업체는 우리지역에서 거둔 막대한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영유아 무상보육비 정부지원 확대 재촉구

도의회가 무상보육 파행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6월 22일 0~2세 무상보육 재원부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8월 7일 영유아 무상보육비 정부지원 확대 재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추가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0~2세 무상보육정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인해 보육현장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무상보육비 전액지원과 함께 영유아의 정서발달, 부모의 선택권보장 등을 고려해 보육수당제로 개편해 나갈 것을 촉구 했다.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8월 1일 0~2세무상보육 대책으로 신규 취원 아동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분 2,851억원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료 재원일부 보전에 불과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 대상이자 당면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과 영유아의 정서발달 및 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해 아동수당제도로 개편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 11월 2일 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광서장족자치구를 방문해 인민회당에서 인대 대표단과 좌담회를 갖고 현안을 협의 했다.

충북도-중국 광서자치구 교류 확대

도의회 대표단, 투자확대 · 뷰티박람회 방문 약속 등 성과

충청북도의회(의장 김광수)가 10월 29일~11월 2일까지 김광수 의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방문단을 구성,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도의회는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 곽성곤 주임 등과 양 지역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도의회 방문단은 곽성곤 인대 주임과의 회담에서 '2013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참가'와 '충북경제자유구역내 투자' 등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내년 5월에 충청북도를 방문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담에서 곽성곤 인대 주임은 "충북경제자유구역내 투자 등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가진 차영복 광서장족자치구인대 부주임과의 좌담회에서는 2013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참가, 충북경제자유구역내 투자, 2015 유기농엑스포 설명 및 참가요청, 한·중 문화예술 교류 추진, 차이나-아세안엑스포 기간 중 중국 바이오 초청, 충청북도 기업 설명회 참가 협조, 의회사무처(인민대표대회)간 직원교환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특히 차영복 부주임은 "충북과 광서의 상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이번 우호교류방문은 곽성곤 인대 주임과 회담을 통해 양 지역 간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는 결과물을 얻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시 협의된 건에 대해서는 광서장족자치구인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는 2009년 체결한 우호교류협정에 따라, 지난해 9월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하여 양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책복지 –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철저한 사전준비로 실효성 높여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테마 기획형으로 보완돼 실시됐다.

도의회는 관광성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준비를 강화하고 주제 중심의 비교견학으로 전환했다. 또한 비교견학으로 보고 들은 것을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첫 시행 대상은 올해 해외연수를 계획한 정책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이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8박 10일 동안 EU 국가들 중에서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 받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3개 국가의 지자체와 복지 시설현장을 방문해 충북도정에 접목할 만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이번 연수는 과거와 같은 백화점식 정보 수집 대신 노인요양 및 주거 복지정책,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정책영역에 집중해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살펴봤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위해 사전에 국내 노인 요양시설(밝은 노인요양원), 장애인작업장(프란치스코의 집), 장애인 교육공동체(슈타이너 학교)등을 방문하고 공부했다.

연수기간 동안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노인요양 및 주거시설(Senioren-Wohnanlage und Pflegeheim), 네덜란드 로텔담 소재 장애인 공동체 캠프힐 (Camphill-gemeenschapOrion), 암스텔베인 시청의 노인, 장애인 담당부서 등의 방문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의 노인, 장애인 복지시스템 및 시설 환경을 확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박 9일 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5개 국가들의 직업교육과 무상교육에 관한 교육활동, 교육정책을 탐색했다.

오스트리아 HTL-donaustat 직업학교와 헝가리 코다이 대학 부속학교 등을 방문해 교육현장을 견학하고 무상교육 제도와 개혁방향을 청취했다.

또 체코 프라하에 소재한 상업계 학교인 OBCHODNI AKADEMIE와 프라하 제2구 구청을 방문해 체코의 직업 및 무상교육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기업, 정부 간의 체계적인 협력과 긍정적인 사고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무상교육의 대해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10월 2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직업학교(htl donaustadt)를 방문해 교육목표 등 현황을 청취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14·315 임시회)

특위구성·사무감사 계획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종 의원)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두 차례 위원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9월 10일 실시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키로 했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과 정부 인센티브 확대 및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점검 등을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청원·청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키로 했다.

9월 21일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4건을 심사 의결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지역발전의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책연구, 집행부 정책건의 등을 위해 구성했다.

또한 이날 2012년 8월 31일 시행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신설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을 행정문화위원회로,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건설소방위원회로 하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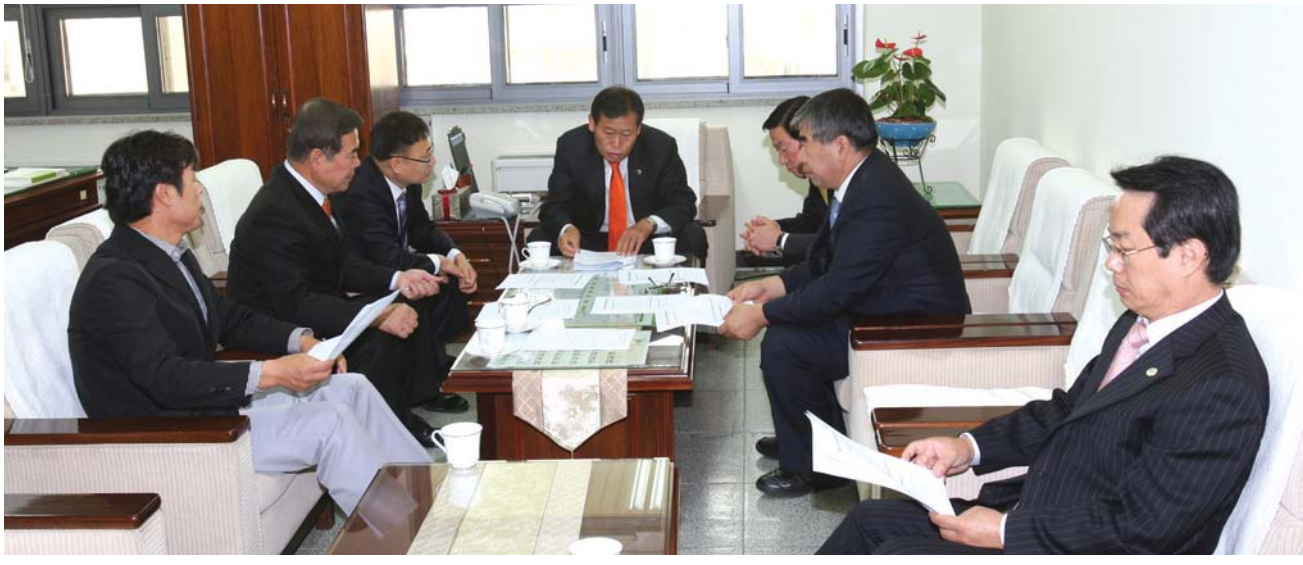
그리고 제315회 임시회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11월 23일 2012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10월 18일은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제31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해 원안 의결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13일간 실시하게 되며 201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업무처리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심사한다.

제316회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다.



▲ 10월 9일 간담회를 열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14·315 임시회)

박람회조직위·시설 현장 방문

▲ 9월 14일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복지시설을 현지 확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9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에도 여성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14일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박람회 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20일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프란치스코의 집' (청주 미평)과 노인요양시설인 '밝은언덕 노인요양원' (음성 소이)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315회 임시회에서는 자문위원 간담회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확정하고 해외테마연수 사전준비를 위해 국내 관련 시설을 비교 연수했다.

10월 9일에는 충청대학교 심의보 교수 등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복지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와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10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11월에 실시 예정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총 248건의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확정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10월 16일~17일 이틀간 연찬회를 갖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체학교인 「슈타이너 학교」를 방문해 캠프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영국의 캠프힐 운영사례 등의 강의를 듣고 10월말 장애인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해외연수에 대비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14·315 임시회)

문화관 · 남북교류 조례 심사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13회 임시회 중 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청원군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하고 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과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의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심사하며 도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에 보조를 맞췄다.

또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열린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 중 미흡한 부분 등을 수정 의결 했고, 의원 발의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8월 23일 비회기 중 녹조와 관련 현지점검의 후속조치로 수질관련 부서장에게 녹조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한 후 278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신뢰성과 식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봄까지 녹조 종합대책 메뉴얼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315회 임시회 중 위원회를 열어 남북지역 간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형근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것으로 기존 시행 중인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농업 분야만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 등을 대비해 경제·문화·관광·체육·농업·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및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것으로 현지방문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이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12일에는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최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10월 10일 청원군(오송읍, 남일면)에 위치한 충청북도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및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부지를 확인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14·315 임시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 10월 10일 청원군 내수면에 위치한 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해 가축혈청검사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헌)는 제314·315회 임시회 기간 중 국회를 방문해「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으며 2012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축산연구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9월 11일 국회 방문에서는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하고 그동안 충북도의회가 추진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상생을 위한 활동을 설명하고 △(대규모점포의 월4회 일요일 의무휴업일 확대 △대규모점포 등 개설 시 허가제 도입 △판매품목 제한 △농산물 판매 51%이상 예외규정 삭제 △외국기업·대기업 직영점형 체인점과 프랜차이즈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영업제한 및 허가제 도입) 등 5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또한「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소기업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제315회 임시회 에서는「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특히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충북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목록 건수를 270건으로 확정했다. 이중 민선5기 경제 및 농정분야의 주요정책과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또한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자「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도정현장인 축산위생연구소와 잠사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도 방문해 농민들의 소득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14·315 임시회)

대구첨복단지 방문해 현황 파악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13회~315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현안을 심사하고 새롭게 신설된 조직인 혁신도시 관리본부 등 소관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원 포인트로 개최된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강현삼 의원과 임헌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선출' 과 '진정한 인도주의 실현 기대'를 주제로 집행부에 대해 각각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제314회 임시회기 중에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박문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로 공직사회를 확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 19일 우리 도와 경쟁관계이면서도 상생협력관계인 대구 첨복단지와 컨벤션센터를 현지방문해 성공적인 오송첨복단지 조성 방안을 모색했으며 집행부에는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승인하고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10월 10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더욱 화합·단결해 도민의 안전과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에 따른 현실불부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했다.

▲ 9월 19일 우리 도와 경쟁관계이면서도 상생협력관계인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첨복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교육위원회

(제314·315 임시회)

제주교육수련원 예정지 확인

▲ 9월 19일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예정지를 방문해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또한 19일과 20일 이틀간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제주도에 위치한 설립 예정지를 방문해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9월 21일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제315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1일은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외연수에 대비해 사전에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직업교육 현장을 시찰했다.

세계 정상급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금오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위원들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정보통신분야 청년 마이스터 육성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신입생 원서접수 현장과 실습위주의 직업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 12일 제93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음성고등학교, 보은정보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제천산업고등학교 등 도내 고등학교 선수들의 경기를 참관하고 선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한 지도교사들을 격려하며 충북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아동·여성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아동·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기반마련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력체인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목적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청주시·청원군의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
-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 추진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강현삼 의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양희 의원)

- 충북문화관 개관에 따라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결정에 따라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하고 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
-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수완 의원)

-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문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진 의원)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시행 중 관계법령의 조항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담당부서 과장'으로 개정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도경 의원)

-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조직신설(실·국)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개정코자 함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의 부지 및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적정규모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반영한,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계획(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이 폐지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4항에 의거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완백 의원)

-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 택 지 개 발 사 업 83,440㎡ (2012~2014년)
- 총사업비 : 424억원 (공사채 발행조달계획: 보상비 등 280억원)
- 발행형식 : 채권발행(공모, 사모), 증서차입 등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명문화하고자 함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재종 의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법 조항에 맞게 조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본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2012. 7. 1.자로 부칙에 의해 이미 개정된 정원 총수를 본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권기수 의원)

-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행정환경변화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 충북도립예술단에서 충북도립교향악단으로의 변경에 따른 교향악단 정원 변경

제315회 임시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해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요구 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충청북도의회가 충북과 북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형근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보건, 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 투자한 법인 단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했고, 도와 시 군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태지만 앞으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북한을 동반자로 삼고 북한의 좋은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성옥 의원)

-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별 학교수를 균형 있게 배분하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근거리 배정을 도모하고자, 현행 3학교군에서 4학교군 운영체제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개정함

충청북도 외국자치 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주덕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도유지를 충주시에 교환처분하고
- 지방도(597도로) 인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낙엽송 조림성공지로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시유림를 취득하고자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의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통합추진기구의 명칭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 → 청원·청주통합 추진지원단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우리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등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산업발전의 지속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건립하고,
- 도내 200여개의 노동조합 회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소통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 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제314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김 동 환 의원
(교육위원회)

고속버스 요금 차이가 나는 이유

[질문] 우리 충청북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중교통행정이 있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강남이나 동서울까지 우등고속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8,400원입니다.

[질문] 충주 – 강남, 충주 – 동서울 우등고속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1만 900원입니다.

[질문] 그러면 충주에서 강남터미널과 청주에서 강남터미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둘 다 유사한 거리입니다.

[질문] 충주 사람들은 같은 거리인데도 왕복 5,000원을 청주사람보다 더 낸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우등고속의 경우 2011년에 청주 ~ 강남간 1년 동안 평균승차율 67.8%, 청주 ~ 동서울간 39.2%, 충주 ~ 강남간 77%, 충주 ~ 동서울간 77%인 것을 보면 충주사람들이 청주 사람들보다 고속버스를 월등히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충주사람들과 제천사람들은 버스요금을 더 내고 서울을 다녀야 합니까?

[답변] 청주~ 강남, 청주~ 동서울간은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이 회사와의 경쟁을 위하여 적정요금보다 2,300원 또는 2,600원까지 추가로 편당 요금을 인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폭리에 대한 조치

[질문] 충주 ~ 강남간, 충주 ~ 동서울간은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경쟁을 않기 때문에 5,000원을 더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답변] 적정요금은 결국 국가에서 정한 요금 체계에 따라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충주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청주노선에서 요금을 인하하여 그 회사가 적자운영을 해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청주 ~ 강남, 청주 ~ 동서울 요금이 적정요금임을 전제 할 때 충주 ~ 서울을 운행한 회사는 십수년간 약 백억원 이상의 합법적 폭리를 취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방조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조취를 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불법 또는 부적정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관할 관청에 인하를 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협조요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금산정 방식 개선 관련

[질문] 지역운수업체의 운행을 권유 및 허가해 경쟁체제를 만드는 방법, 요금산정방식 개선 건의 및 책임자 면담, 충주시와 공동대책을 강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충청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질문] 충주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역 운수업체의 운행권유나 노선허가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거나 충주시와 공동대책기구 설치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도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작고 사소한 것에 섭섭해하고 불편해하고 분노합니다.
제발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고쳐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하 재 성 의원
(교육위원회)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종합계획과 충북을 대표할 우수한 스포츠 스타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향후 체육시설 확충은 체육활동 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으며 학교체육의 지원은 물론 우수 선수에 대한 사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충주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규모, 소요예산, 전국체육대회 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 사업비 940억원을 들여 조성될 경기장은 관람석 20,000석, 400m 8레인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노후된 현재의 종합운동장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종료 후 수익 공간 민간임대, 충주헴멜축구단 홈 경기장 활용, 전지훈련 유치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충주에 수영장과 야구전용경기장 건립계획이 있는지와 타 시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주에 수영장이나 야구경기장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며, 제천테니스장, 청주흥덕지구축구공원, 보은스포츠파크, 진천스포츠시설타운 등 34개 사업이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대비 인프라 구축

[질문] 청주·청원 통합에 대비한 종합스포츠타운 신축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30 청주·청원 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도내 각 지역별 자연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계획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7년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시·군별로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진행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법기관에 엄중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선생님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사유

[질문] 도교육청에서 항공소음 등의 이유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의 설립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그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향후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운항편수가 증가하면 항공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설립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정보원 토지를 과다 구입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입 사유와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지 내에 멸종위기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생태 연못으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회의실을 500석으로 신축하고 있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매입한 것입니다.

[질문] 청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불법찬조금 조성이 지적되었는데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문]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에서 교육감을 당사자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학교회계 직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2008년 서울고법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과부 및 11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이 수 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북도청 이전 계획 관련

[질문] 청원·청주 통합시가 출범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가 100만을 넘어 광역시로 승격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경제, 문화, 예술 등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시·도와 같이 행정관할 구역 분리에 따라 충북도청도 이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준공예정인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는 2020년까지 1만 4천여 가구에 약 4만 일천 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교육·문화 및 IT·BT 융·복합 도시로 이 지역은 교통의 요람지요 자족형 미래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부지확보 문제 등을 선결하고 도청을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른 도의 도청이전 경우는 도청이 소재했던 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이 관할구역이 다른 광역시 내에 위치하게 되어 도민들의 도청이전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도청이전 여부에 대한 검토 연구를 거쳐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고 도청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수의 광역시 출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시가 인구 100만명이 넘어도 광역시 승격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방침에 비춰볼 때 향후 통합청주시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더라도 광역시 승격은 사실상 어렵고, 통합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청이전 문제는 현재는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통합 청주시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내 모든 시·군이 고르게 잘살 수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태양광 산업을 집적시킨 솔라그린시티로 조성하여 충북 100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명품도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행·재정 지원

[질문] 농촌을 살리고 폐교를 막기 위해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통학구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읍내의 대규모 학교에서 농촌의 작은 학교로 돌아오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학교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 학교 살리기 특별 자유 학구" 지정을 하고 교육프로그램과 통학버스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작은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교육장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해당 지역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는 지역여건 고려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소규모 중학교는 기숙형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라 할지라도 1면 1교, 학부모 반대 및 원거리통학 등 여건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는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으며 농·산촌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전원학교 지정과 통학버스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최 미 애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창의·인성 교육 추진 내용

[질문] 교과부가 2009년부터 갑자기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과 도교육청의 창의·인성교육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창의성'이 강조되고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는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필요에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TF팀을 조직하고 창의·인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사연구회 조직, 교원 대상 현장적용 연수,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자료의 개발과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과부에서는 창의·인성교육에 맞게 교수 – 학습방법을 개선하라고 하였는데 교수 – 학습방법의 개선 사항과 교과별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몇 건이나 개발하여 보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매년 교원 대상 창의·인성교육 현장 적용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현장의 요청을 바탕으로 컨설팅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인성교육 교과별 지도자료 총 66종을 개발하여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질문] 교과부의 제7차 재정교육과정에서는 수행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수행평가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교과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의 평가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평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며,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 고등 사고기능을 평가하고 학생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 20% 이상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험 활동과 수업 방식의 변경

[질문] 우리 고등학생들은 수업으로 하루가 꽉 차 있어서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던데 이런 문제제기에 대하여 해명해 주십시오.

[답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운영과 교과 학습과정에서 체험 학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아리별 체험학습이나 봉사활동, 현장견학, 각종 진로활동 등을 위하여 방과 후 또는 주말 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교사들은 수업을 다양하게 토론식으로 하려면 교사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답변] 컨설팅 장학 및 수석교사 중심의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개개인의 자율적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실 수업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자기주도적인 토론과 탐구중심의 수업방식으로 바꾸려면 수업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토론 및 탐구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교원들에게 보다 많은 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의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인성 교육 실현 방안

[질문] 학생들과 교사들을 시험부담에서 해방시키고 경쟁이 아닌 조화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교육모형으로 바꾸라는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모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창의·인성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별 창의·인성 교육방법의 연구·개발,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상적 운영, 각종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창의·인성 교육정책을 되짚어보고 문제점의 최소화, 효율적인 적용 방안과 발전적인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권 기 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북부출장소 청사 조기 건립 촉구

[질문] 충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 북부출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제천, 단양에도 충북도정의 기운이 전달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부출장소를 개설할 당시에는 시간적, 예산적 한계로 청사를 마련할 수 없어 임시로 제천시 의병도서관 3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실의 사용기간이 2012년 12월 말까지로 되어있다는 것으로 북부출장소의 역할제고를 위해 청사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북부출장소 건립을 위해 제천시에서 추천된 후보지 모두가 사유지로서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다시 제천시로부터 적정후보지를 추천받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시에서 개발 예정인 미니복합타운 예정지를 후보지로 추가 검토하는 등 북부출장소 청사가 조기에 신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질문] 현재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제천봉양건강축구장은 125억원이 투자되어 한국 여자축구연맹 트레이닝센터로 사용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홍보 그리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입소이후 지역에서 한 번도 경기를 하거나 지역에 기여한 것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스포츠토토는 충청북도를 연고지로 연 1회 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협의한 바 있고, 스포츠토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화합 차원에서 유소녀축구대회 개최, 사랑의 연탄나누기(1만장), 결손가정 장학금지원(1천만원)과 지난 10월 6~7일 제1회 청풍호배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추진 계획

[질문] 충북도에서는 한방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4대 전략목표에 2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4,763억원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예산지원 없이 장밋빛 계획과 그럴싸한 말잔치만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향후 계획과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육성과 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해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천시와 공조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생회관과 영어체험 센터 건립

[질문] 제천 학생회관과 영어체험센터 및 제천 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건립 추진 상황이 미흡합니다.

임기내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건립하고, 제천학생회관은 건폐율을 상향 조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 제천 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정리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315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손 문 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4대강 사업계획 변경 여부

[질문] 도내 4대강 살리기 사업과정 중에서 민선 4기와 민선 5기에서 각각 담당한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민선 4기인 2009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2010년 3월까지 7개 지구 모두 착공이 되었으며, 민선 5기에 접어들어 4대강 살리기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질문] 민선 5기 들어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작천보 상류지역 친수공간 2개소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였고 단양별곡지구는 성토계획고를 1.5m 높여 142.5m로 조정하였으며, 충주 비내지구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하중도 조성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4대강 시설물 피해 및 복구 실태

[질문] 태풍 등의 영향으로 영동 심천면 수변 공원 등 4대강 사업 시설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그 동안의 시설물 훼손실태와 복구,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침수과정에서 수목 훼손, 토사 퇴적 등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소나무 등은 다른 위치로 이식 또는 수종을 변경하여 식재하였고 퇴적된 토사 등은 제거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문] 거리가 멀어 활용도가 없거나 주민들이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고 홍수수위보다 낮은 곳에 시설물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제출받아 확정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홍수 발생 시에는 일부 친수시설이 침수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침수횟수도 적고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지 하천지형에 어울리지 않는 수종 식재와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고 활용도를 모니터링하여 불필요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용도 변경 또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시설물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군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가가 유지보수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킬 경우 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설물 유지보수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가 이관되어 도의 조례로 시·군으로 위임하였으나 도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유지보수예산 23억 9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고, 향후에도 지방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단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질문] 올해 12월말까지 무상보육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 언제까지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우리 도에서 확보한 예산은 1,531억원인데 반해, 소요액은 1,774억원으로 추계되어 시·군 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10월 말에서 11월 중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9월 시도지사협의회와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보육료 부족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우리 도의 입장과 수용할 경우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하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지방비 추가 부담 시 예비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서 밝힌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 전국의 지자체와 공조하여 무상보육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이 연내 개정되어 현행 50%의 국고보조율이 80%로 상향 조정되고 보육료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적십자사 회장 선출과 관련해

강현삼 의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적법한 선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충청북도가 추천한 후보의 낙선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적십자 총재의 인준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분열과 불신으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풍부한 행정경험과 남다른 정치 감각으로 치우치지 않는 도정 업무 수행을 해 오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항상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단체와 연관된 인사 시스템은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십자는 더 이상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순수한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분열된 도민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 줌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각별한 대책과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진정한 인도주의 실현 기대"

임헌경 의원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생명의 존엄을 몸소 실천하는 숭고한 단체입니다.

이번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선임을 놓고 유독 우리 충북만이 파행과 갈등을 빚고 걱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정치권 손이 결국엔 충청북도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적십자사 중앙회 총재와 사무총장이 충청북도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영용 회장의 인준에 대한 보류의사를 밝혔다가 느닷없이 인준한 것은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거대한 단체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는 "당혹스럽다", "적십자사가 두 번 농락했다",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억울함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태를 자만하여 정보력과 정무기능 부재로 충북도의 권위와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정신뢰를 위해 우리 모두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개선 촉구

노광기 의원

금년 3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만0~2세 무상보육 사업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 사업이 중도에 좌초된다면 그 피해는 보육현장과 도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밑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다음세대를 위한 투자이므로 반드시 지속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자체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진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보육 사업은 절대 중단되지 않도록 추경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최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2015년 3월까지 충북도내 단설 유치원 8곳에 대한 신설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단설 유치원 신설과 운영에 소요될 재정이면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과 교사처우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충북도내 유아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설 유치원 여덟곳의 신설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시설물 관리방안 시급"

손문규 의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올 상반기에 모두 완공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지난 4월 충주지구 공사를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친수시설 설계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부족입니다.

둘째, 4대강 시설물들의 상당수가 장마에 훼손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친수시설 시설물들의 유지·보수사무를 시·군이 떠맡아 앞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저는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영동군을 비롯한 7개 시·군에 설치된 친수시설에 대해 기초설계 상의 문제부터 전문적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시 설계를 변경하는 과단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앙정부가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행정 추진을"

박문희 의원

금년 5월에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의 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와중에 정우택 의원이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마치 본인이 만든 치적인양 언론에 홍보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회장 선출과정을 보면 적십자사 총재의 인준까지 받고 내려온 후보자를 제척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회성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오송을 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시켜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야 박람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적극 막아야"

장선배 의원

정부는 지난 3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증설과 공업용지 조성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집중과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지역은 모두가 힘을 합쳐 수도권규제 완화 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명박 정권의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첫째, 충청권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 광역의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이전과 공장입지 허용을 위해 제출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지역 차원의 역량 결집도 요구됩니다.

넷째,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역균형발전을 정책공약으로 요구하고 대선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작은학교 통·폐합추진 반대"

이광희 의원

농·산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구성 설치 운영 조례」가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저는 제가 주장한 설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열 서너살 되는 아이들의 기숙생활로 상실되는 심리·정서적 평가가 조금 더 이뤄진 연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효율성만 앞세워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금 더 평가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신이 살고 있는 학군 내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숙형 중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넷째, 이미 기존에도 50명 이하의 학교는 지역 및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열흘만에 15개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조례를 공청회, 토론회 한 번도 없이 공론화과정을 생략한 채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도민들과 일선 교육자들은 저의 반대 입장에 대한 우려와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위원회별 자문위원 15명 위촉

정책대안 제시하는 도의회 「씽크탱크」로 운용

충북도의회는 지난 9월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중요 사안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 등에 자문, 지원을 위한 위원회별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올 9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위촉 기한인 자문위원들은 특수 분야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문 지원을 하며 의회에서 지정하는 관제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 지식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광수 의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자문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고견으로 도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하여 9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각 상임위별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책복지 :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심의보 충청대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재호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장 △행정문화 : 이장희 충북지방자치학회장, 민양기 충청대 관광호텔관광학부 교수, 강태재 충북문화예술포럼 대표 △산업경제 : 김동환 청주대 경영학부교수, 윤영한 충북벌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상택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건설소방 :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성수 대정건설(주) 대표이사,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교육위원회 : 노재전 전 청주교육장, 홍진표 전 중앙도서관장, 정원용 전 영동인터넷고교장이 각각 위촉되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9월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견학
10월 16일 도의원들이 바이오산업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셀트리온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방문
9월 11일 김광수 의장과 산업경제위원들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방문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노인복지의료시설 방문
9월 19일 김광수 의장과 도의원들이 중추절을 맞아 노인복지의료시설을 방문해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체의원 연찬회
9월 12일~13일 대천 한화콘도에서 제9대 의회 후반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가 개최돼 현안을 협의 했다.

▲대구 컨벤션센터 방문

건설소방위원회는 9월 19일 대구컨벤션센터를 방문하고 우리도에서 건립 계획 중인 컨벤션센터와 비교분석을 하는 등 대안을 강구했다.

▲슈타이너학교 방문

정책복지위원회는 9월 14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슈타이너학교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충주 내수면 연구소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24일 충주시 용탄동에 위치한 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해 치어생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 방문

교육위원회는 10월 11일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관으로부터 교육내용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음성고등학교 정구 경기 관람 선수단 격려

교육위원회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음성고등학교 정구 경기를 참관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옥천 하수처리장 방문

행정문화위원회는 8월 23일 대청호 옥천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수중 정화식물 군락 및 오염물질 침전지를 확인했다.

▲ 문화재 발굴현장 확인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25일 충주 중원고구려비와 단양 온달선성을 방문해 문화재 발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인터넷방송 현지 확인

정책복지위원회는 9월 14일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터넷방송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산림환경연구소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0일 청원군 미원면에 소재한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해 산약초 전시원을 둘러봤다.

이상설 독립운동 테마파크 만들자

이수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최근 독도 문제와 함께 독립운동가 이상설선생의 해외 독립 활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95년 전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던 '헤이그 특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는 독도·위안부 등 일본 과거사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홍보전 '21세기 신(新)헤이그 특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헤이그특사의 수석이 보재 이상설 선생이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1870년 12월 7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직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나고 총명했으며 조선의 마지막 과거인 갑오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관장, 한성사범학교 교관 등을 역임하였다.

선생은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해 철회운동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을사늑약의 강제를 막지 못하자 의정부 참찬 자리를 버리고 자결을 시도하며 을사늑약의 무효와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1906년 국외로 망명한 선생은 북간도 용정촌에 근대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항일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듬해에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평화회의에 이상설을 정사로 하고, 이준, 이위종을 부사로 삼아 광무황제의 특사로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무효화와 일제침략의 실상을 열강에 호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에서 항일투쟁운동을 하며 한일강제병탄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 항일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렸다. 또한, 독립전쟁론을 구현하기 위해 나자구에 대전학교를 설립하였고 1914년에는 국외 최초로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고 정도령에 선임 되었다. 이후 대한광복군정부 조직이 와해되자 상해에 신한혁명당을 결성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선생은 건강악화로 48세의 젊은 나이로 니콜리스크에서 순국하였다. 이처럼 보재 이상설선생은 1905년부터 말년까지 국내·외에서 전개된 여러 갈래의 각종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 충북인으로서 자랑스런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다. 이런 이상설선생을 주제로 국민의 나라 사랑정신과 도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이상설선생 독립운동 테마파크'조성을 제안한다.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정부, 충청북도, 진천군이 함께 힘을 모아 해외에서 조국독립 활동을 하였던 이상설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 국가의 소중함과 외교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념관 이외에도 이상설선생이 세운 서전서숙 및 대전학교 등을 활용해 학생이들 충, 효, 예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청학동과 같은 전인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근대사가 제대로 정리되었다면 지금의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하며'이상설 독립운동 테마파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의정일기

지역균형발전 실현위해 노력 할터

김종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어 지난 7월에는 새롭게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었다.

전반기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작게는 진천군민을 위해, 대의적으로는 충북도민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뛰어 왔으나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 동안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 구제역, 인사시스템, 119지역대 등 다양한 분야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대안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정 전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지역 진천에는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다. 이는 세종시 출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청주·청원통합 등과 같이 충청지역의 주요 발전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진천지역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지역에서는 물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던져왔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을 위한 도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충청북도 전체를 위한 도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원론적으로는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통해 도정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역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시야가 굳어버린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도의원이라면 대의적인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되며, 그것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이 당선되기 전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내 고향 생거 진천의 희망찬 미래 발전을 위해 강한 추진력과 지역 발전의 힘찬 원동력이 되고 싶어 출마하게 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이 해당 지역의 발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지역-지역 간 발전을 통해 충북지역 12개 시·군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충북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은 교각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낙후지역을 해소시키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

어느덧 11월부터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개회된다. 한 해의 마무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 했는데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시사점은 지방의원들에게도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아닌 지난 1년간 도정 전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대안까지 제안해줄 수 있는 넓은 해안이 요구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 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 · 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